

다산학 45호 (2024.12) | 007~050

『상서고훈尙書古訓』과 『경세유표經世遺表』의 고적론考績論

르엉 미 번(Luong My Van) | 베트남사회과학한림원, 철학원 박사

목차

- 들어가는 말
- 『상서고훈』에서 나타난 고적 이론
- 『경세유표』의 고적제考績制
- 정약용 사상 속에 있는 경학·경제학의 관계
- 결론

1. 들어가는 말¹⁾

한국 실학 집대성자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한국 유학사 중 어떤 학자보다 수많은 저서를 남긴다. 그의 저서는 형이상학과 수양론, 사회학, 경제학, 지리학, 문학, 의학 등과 같은 여러 영역을 포괄한다. 정약용은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에서 자신의 저서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었는데 하나는 『모시강의毛詩講義』나 『매씨서평梅氏書評』, 『상서고훈尙書古訓』, 『상례사전喪禮四箋』, 『사례가식四禮家式』, 『악서고존樂書孤存』, 『주역심전周易心箋』, 『역학서언易學緒言』, 『춘추고징春秋考徵』,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 『맹자요의孟子要義』, 『중용자잠中庸自箴』, 『대학공의大學公議』 등과 같은 육경·사서 해석서이고, 다른 하나는 『경세유표經世遺表』나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전례고典禮考』, 『대동수경大東水經』²⁾ 등인데 정약용에 의해 ‘일표이서一表二書’라고 불리는 저서이다. (‘일표이서’란 정약용의 심장과 의지 그리고 ‘신아구방新我舊邦’이라는 기원을 담기는 『경세유표』과 『목민심서』, 『흠흠신서』라는 작품이다).³⁾ 이 2가지의 저서는 바로 경학 작품과 경세학 작품들이다. 즉 그 저서들을 통해 나타나는 정약용의 사상체계는 경학과 경세학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 정약용 자신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본 논문은 2023년 10월 다산학술문화재단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논평자로 하신 윤석호 교수님의 지적에 따라 수정·보완한 것이다. 다시 한번 소중한 논평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 『自撰墓誌銘(集中本)』(『定本』, 제3책, 269쪽) 참조.

3) 『自撰墓誌銘(集中本)』(『定本』, 제3책, 277~278쪽) 참조.

육경六經과 사서四書로써 자기 몸을 닦고 1표表와 2서書로써 천
하·국가를 다스리니, 본말本末을 갖춘 것이다.⁴⁾

그러므로 경전을 궁구해서 얻는 학문인 경학은 세계관을 밝히고 인
생과 사회를 이해하고 덕을 닦기 위한 것이며, 경제와 재정, 전지, 관리,
형법 등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론들인 경제학은 국가와 백성을 다스
리고 태평의 목표를 향하기 위한 것이다. 이 두 부분은 ‘본말을 갖춘다’
라는 것은 바로 정약용의 관점에서 경학을 ‘본’, 시작이고 경제학을 ‘말’,
결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유학사에서 유학자 대부분은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경전으로부터 자신의 세계관을 정비하였다. 유학자의 입
장에서 성현의 말을 기록한 경전은 절대 바뀌지 못한 진리이고 세계와
인간에 대한 시선을 만들기 위한 기초이다. 유학자들은 백성을 인도하
고 다스리는 사명을 자신에게 책임지어, 그들 중에 대부분은 경전을 공
부하고 지식을 얻어서 과거 급제하고 관료로 진출하여 이러한 지식을
다스림에 적용하며, 다른 학자들은 저서를 하고 학설을 정립하는 사상
가가 되면 또한 경전을 기초로 여겼다. 그러므로 실학자와 같은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사상가에게도 경전에서 얻던 지식은 경제학적
이론의 바탕이 된 것이다. 이는 이이李珣나 유형원柳馨遠, 이익李瀾의
경제론經世論에서 뚜렷하게 보일 수 있다. 정약용의 사상체계에서 경
학과 경제학의 관계는 이상에 언급한 듯이 더욱 분명하다고 말 할 수
있다.

4) 『自撰墓誌銘(集中本)』(『定本』, 제3책, 278쪽). “六經四書, 以之修己, 一表二書, 以之爲天下
國家, 所以備本末也.” 국역: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정약용 사상에서의 경학·경제학 관계, 그리고 『상서고훈』, 『경제유표』, 고적론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가 많이 있고 성과도 많이 나왔다. 본 논문 틀 내에서 최근의 논문이나 본 논문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논문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산의 유학세계: 고적제(考績制)의 정치학」이라는 2002년에 출판된 배병삼 교수의 논문이다.⁵⁾ 그 논문의 연구 대상은 정약용의 저서들에서 논의된 고적제考績制이다. 저자는 『상서고훈』과 『경제유표』, 그리고 두 단문인 「고적의考績議」와 「상중씨上仲氏」에서 나타난 고적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논문의 대상은 본 논문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자는 역시 고적 이론이 『상서』 연구인 경학에서부터 발전하고 『경제유표』에서 제도로 만들어진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저자의 접근 방식은 정약용 사상의 정치적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어서 고적을 통해서 나타난 경학·경제학의 관계에 집중하고자 하는 본 논문과 비슷하지 않다. 배병삼 교수의 논문에서부터 많은 의견과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2000년에 다산학술문화재단의 학술지인 『다산학』 잡지가 창간되었다. 창간호는 바로 정약용 사상 속에서의 경학·경제학 관계를 주제로 한 특집이었다. 논문 중에 이우성 선생의 「다산의 경학經學과 경제학經世學의 관계」가 들일 수 있다.⁶⁾ 이 논문은 일반적으로 경학·경제학의 관계에 대해, 정약용 사상 속에서의 경학·경제학의 관계에 대해 많은 합리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저자가 “궁경이치용窮經而致

5) 배병삼, 「다산의 유학세계: 고적제(考績制)의 정치학」,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2, 101~138쪽 참조.

6) 이우성, 「다산의 경학經學과 경제학經世學의 관계」, 다산학술문화재단 엮음, 『다산 경제학연구』, 도서출판 사암, 2023, 65~74쪽 참조.

用”이라 하여, 경전經典을 궁구窮究하여 그것으로 ‘용用’을 이룩한다는 것은 유학의 본래의 지향입니다. ‘용用’은 곧 경세經世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제치평修齊治平’이 유학儒學의 본령으로 알려져 온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경우에 ‘경세經世’에 관한 것이 수제치평修齊治平이라는 원칙론·일반론에 머물러서 그것이 다만 유학儒學의 이념理念으로 관념화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현실에 즉卽한, 실지사정實地事情에 즉卽한 과학적科學的 파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학과實學派의 경학經學은 일차적으로 주자학朱子學 즉 성리학적性理學的 경학經學과 구별되어야 하고, 또 주자朱子の 집주集註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경세적經世的인 의견이 있어야 하며, 경세經世 그것도 유학의 원칙론·일반론적 수제치평론修齊治平論에 머물러 있고 실지사정에 입각한 구체적 연구논술이 아닌 그러한 경학과도 구별되는 것입니다.”⁷⁾라고 말한 것이다. 그 의견을 통해 정약용 사상에서의 경학·경세학 관계가 다른 유학자들과 다른 점을 알려주었다.

이우성 선생의 논문은 2023년에 간행된 다산학술문화재단의 『다산 경세학 연구』라는 책에 다시 게재되었다. 이우성 선생의 논문 외에 『다산 경세학 연구』 책에 또한 본 논문의 내용과 직접 연관된 논문이 많이 있다. 먼저 조성을 교수의 「『경세유표經世遺表』 연구의 제문제」⁸⁾라는 논문은 고적제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지만, 문헌학적이거나 연구사, 정치 개혁 사상, 경제 개혁 사상 등과 같은 『경세유표』에 대한 구체적, 전면적 연구이다. 그다음에는 전성건 교수의 「다산 정약용의 경학과 『경세

7) 이우성, 앞의 논문, 69~70쪽.

8) 조성을, 「『경세유표經世遺表』 연구의 제문제」, 다산학술문화재단 엮음, 앞의 책, 253~290쪽 참조.

유표』⁹⁾라는 논문에서 정약용의 경학 방법론, 그의 경학 저술, 예법, ‘신아구방新我舊邦’이라는 기획 등 주요 내용이 있다. 전성건 교수가 “그(정약용)의 경학 저술은 조선후기 경학사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체로 유의미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그 실제 목적은 신아구방新我舊邦을 위한 제도개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경학연구가 원시유학의 이념 및 법과 제도를 복원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산이 기획한 국가차원의 제도개혁은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존주론尊周論이나 존왕론尊王論의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왕도정치를 구현하려는 행왕론行王論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¹⁰⁾라거나 “『경세유표』는 다산의 경학 저술을 통해 마련된 삼대의 정치이념과 운영제도를 토대로 하여, 시공간을 달리하는 당대의 현안懸案에 맞게 고금을 참작하고 변통해서 작성된 현실제도의 모델이었던 것이다. 즉 고려탁원과 제도개혁의 두 측면에서 그의 경학 저술과 경세학 저술이 작성되었던 것이다.”¹¹⁾라는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전성건 교수의 논문은 이 글에 많은 교훈을 주었다.

『상서고훈』에 대한 연구가 많지만, 그 저술의 내용을 경세학이나 정치학, 고적 이론 등을 연결하고 살피는 것이 아직 많지 않다. 2006년에 게재된 박찬영 선생의 「『상서고훈』 「우서」를 통하여 본 다산의 정치사상」이라는 논문을 들을 수 있다.¹²⁾ 이 논문의 한 부분에서 정약용이 『상서고훈』에 말한 고적법考績法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요순堯舜의 유위有

9) 전성건, 「다산 정약용의 경학과 『경세유표』」, 다산학술문화재단 위임, 앞의 책, 337~364쪽 참조.

10) 전성건, 앞의 논문, 338쪽.

11) 전성건, 앞의 논문, 342쪽.

12) 박찬영, 「『상서고훈』 「우서」를 통하여 본 다산의 정치사상」, 『동양철학』 25, 한국동양철학회, 2006, 21~52쪽 참조.

爲 정치의 한 표현이고 요순의 정치가 단지 고적考績뿐이라고 극찬하였다. 박찬영 선생은 『상서고훈』에서 언급된 고적법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였고 올바른 고적이 없고 통치자가 책임 의식이 없다는 당시의 제도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이 글에 많이 유익하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4년에 게재된 김호 교수의 「다산 정약용의 『상서』 재해석과 현능론 - 왕도의 사공(事功)과 고적(考績)」이라는 논문이 있다.¹³⁾ 이 논문은 정약용의 『상서』 해석서들 특히 『상서고훈』에 있는 현능론 모든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고적은 정약용이 당시의 조선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수준으로 삼고 살펴보던 요순 정치의 열쇠로 여겨졌다. 김호 교수가 『상서고훈』에 있는 고적의 정례화 성격과 다른 내용, 그리고 상벌(특히 곤鯢과 우禹의 치수에 대한 상벌)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이 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위의 논문들을 볼 때 『상서고훈』과 『경세유표』의 고적제와 관련된 내용과 정약용 사상에서의 경학·경세학 관계에 대한 문제가 이미 많이 연구되었고 좋은 성과도 많이 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단지 정약용이 경학 작품과 경세학 작품에서 언급한 고적考績이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통해 경학·경세학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작은 목소리를 내고 싶을 뿐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고적이란 공적을 고찰한다는 뜻이다. 공적은 관리가 직무를 수행해서 얻는 성과나 실적이다. 그러므로 고적은 관제官制 영역 속에 있고 인사관리를 비롯한 상벌, 등용, 추출, 통치 체계 정비 등에 관련된 문제이다. 즉 고적은 국가의 흥망에 직접 관계가 있는 정도

13) 김호, 「다산 정약용의 『상서』 재해석과 현능론 - 왕도의 사공(事功)과 고적(考績)」, 『한국학연구』 7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4, 453~492쪽 참조.

로 중요한 경제학적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정약용은 고적에 큰 관심을 가졌고 고대 성왕인 요·순·禹의 정치가 단지 고적뿐이라고 몇 번이나 말하였다.

고적을 이렇게 중시하는 정약용은 여러 저서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고적은 『경세유표』 즉 그가 말한 ‘일표’에서 제도 하나로 발전되었다. 『경세유표』 이전에 「고적의考績議」나 『상서고훈』 등에서도 고적에 대해 살폈다.¹⁴⁾ 『경세유표』는 정약용이 해배되고 고향에 돌아가기 1년 전인 1817년에서 작성되었다. 그 전에 유배를 보내는 기간(1801~1818) 가운데 1810년 가을과 1811년 봄에서 『서경書經』에 대한 주석서인 『상서고훈수략尙書古訓蒐略』과 『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을 저술하였다. 20여 년이 지난 후에 “『상서지원록』을 조목조목 나누어 『고훈수략』에 붙여넣고 합쳐서 한 책(『상서고훈』)으로 만들었다.”¹⁵⁾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상서고훈』이라는 책에 있는 고적을 살펴보는 데 이것은 정약용이 『경세유표』를 저술하기 전에 얻던 연구 성과였다. 이 점은 ‘정약용의 사상에서 경학이 경제학의 기초가 된다’는 견해의 인증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고적이 경전(『서경』)을 연구함으로써 정립된 이론이고 그 뒤에 『경세유표』에서 경제학적 이론으로 발전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외에, 『상서』 해석서들을 저술할 때 정약용이 형 정약전에게 편지를 올리는데 이 편지(「상중씨上仲氏」)에서 고적에 대해 상세하게 말하였다. 물론 그 내용은 『상서』 해석서들에서 주장하는 이론보다 적다. 「고적의」의 경우에는, 작성 연도를 아는 것은 불가능한데,

14) 「考績議」(『定本』, 제2책, 149~150쪽), 『尙書古訓』(『定本』, 제11~12책), 『經世遺表』(『定本』, 제24~26책) 참조.

15) 정약용,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옮김, 「『상서고훈』·『상서지원록』 합편의 서설」, 『상서고훈』 제1책, 학자원, 2020, 65쪽.

내용을 살펴보면 『상서고훈』과 『경세유표』에서 말한 고적보다 간략하고 두 큰 작품에 있는데 이 짧은 글에 없는 내용이 많다는 사실로써 「고적의」가 적어도 『상서고훈수략』을 저술한 해인 1810년 이전에 작성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학·경제학의 관계를 검토하는 목적으로 하는 본 논문에서 정약용의 저서 중 대표적 경학 작품인 『상서고훈』과 대표적 경제학 작품인 『경세유표』에서 제시된 고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상서고훈』에서 나타난 고적 이론

위에서 언급한 듯이 『상서고훈』은 1810년과 1811년에 작성된 『상서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을 합쳐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1810년에 현존의 『상서尙書』 58편 중에 고문古文 25편이 위조偽造라고 논증한 『매씨서평梅氏書評』을 완성한 뒤 정약용은 진본眞本으로 여긴 나머지 편들을 궁구하였다. 『상서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은 그 진본의 편들을 주해하는 책이었다. 20여 년 뒤인 1834년에서 정약용은 그 두 저서를 수정하고 한 책으로 만들어 『상서고훈』이라고 명하였다. 『상서고훈』은 「서序」 3가지와 「범례凡例」, 「상서서尙書序」 부분 외에 7권 32편으로 구성되었다. 그중에서 분량이 가장 큰 편들(다시 말하자면 정약용이 집중적으로 주해한 것이다)은 『상서』 원문의 「우서愚書」에 있는 금문의 편들, 즉 「요전堯典」과 「고요모臯陶謨」라는 편들이었다(정약용이 「순전舜典」 편을 「요전」 편에 넣고, 「익직益稷」 편을 「고요모」 편 뒤에 붙였다).

『상서고훈』에서 기록된 고적 이론은 바로 「우서愚書」에서 보인다. 정약용은 경문이 곤鯀이나 순舜, 우禹, 고요臯陶의 다스리는 성과를 조사

하는 것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고적을 살펴보았다. 『상서고훈』이 경전 해석서라서 주해들이 모두 경전 원문에 따라야 한데 『서경』 경문은 고대 성왕의 말과 업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해서 고적과 같은 문제의 측면들이 집중적이고 차례대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 원문 전개에 따라 설명되었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상서고훈』에서 쓰인 구체적인 이론들을 통해 뚜렷하게 보일 수 있다.

경문 「요전상堯典上」편 제11장¹⁶⁾에서 기록된 사악四岳 관이 곤緇에게 치수하는 일을 맡기자고 제안하는데 요堯임금은 먼저 동의하지 않다가 다음에 곤에 임명했지만, 9년 동안 공적을 못 얻는다는 일을 설명할 때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서古書에서는 매양 “요의 시대에 9년간의 홍수가 있었고, 탕의 시대에 7년간의 가뭄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홍수의 근심이 9년에 그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구재적용불성九載績用弗成’이라고 한 것은, 요·순 시대의 법은 3년마다 고적考績하고 세 번 고적하여 무능한 사람을 내쫓고 현명한 사람을 올려주었기 때문이다. 3년마다 하는 고적을 세 차례 설치고 나면 그대로 맡겨서 공을 이루도록 책임을 지운다. 법제가 일관되게 정해져 있으므로 비록 여러 사람이 분분하게 말을 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지만, 실패하여 내쫓을 상황에 이르면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왕이 사람을 임용하여 공을 이루도록 책임을 지우는 대경대법

16) 『서경』 경문 편과 장의 번호는 국역 『상서고훈』(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옮김, 학자원, 2020)에 따르는 것이다.

大經大法으로 어길 수 없는 것이다.¹⁷⁾

위의 인용문에서 고적의 원칙 하나가 보일 수 있다. 3년마다 한 번 공적을 고찰하고, 그러한 3번이 지나면 결과를 합하고 상·벌을 내고, 승진시키거나 좌전·파직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정약용의 말에 따르면 고적은 매우 엄격하고 절대 흔들리지 못한 제왕의 ‘대경대법大經大法’이다.

경문 「요전상」편 제15장에서 요임금이 순에게 말한 ‘순사고언詢事考言’(일을 묻고 말을 고찰한다)이라는 명제에 관해 설명할 때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순사고언詢事考言’이란 말로 펴서 아뢰고 공적으로 분명하게 시험하는 것이다. 한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그 일에 대한 모책을 묻고서야 직책에 임명하고, 그런 뒤에 그 공적을 평가하여 그 말대로 실행했는지 증험한다. 이것이 고적考績의 대법으로, 요가 여기서 그것을 설명한 것이다. 계획을 묻고 실적을 평가하지도 않은 채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후대의 잘못이다.¹⁸⁾

따라서 ‘순사고언’은 정약용에 의해 고적의 중요한 방법이 된 것이다. 임명받은 사람이 자신의 말로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후에 어떻게 처리한 지에 대해 진술해야 하며, 평가할 때 그 말에 근거하여 조사한다.

17) 정약용,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옮김, 앞의 책, 제2책, 111~112쪽.

18) 정약용,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옮김, 앞의 책, 제2책, 140~141쪽.

‘순사고언’은 순임금에 대한 기록에 있는 ‘부주이언敷奏以言’(말로 상소한다)이라는 명제와 비롯한 것이다.

다음에는 경문「요전하堯典下」편 제2장에 있는 순舜의 순수巡守에 대한 기록을 해석할 때 정약용은 순수의 역할과 관리 주적奏績(공적을 올린 다)과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 두 구(‘부주이언敷奏以言, 명시이공明試以功’)는 바로 순수의 대의大義이다. 제후가 천자에게 조회하는 것을 ‘술직述職’이라고 하는데, 술직이란 ‘말로 아뢴다(敷奏以言)’는 뜻이다.(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칭술稱述하는 것이다.) 천자가 제후에게 가는 것을 ‘순수巡守’라고 하는데, 순수란 ‘공적을 분명하게 시험한다(明試以功)’는 뜻이다.(그가 지키는 일을 순찰巡察하는 것이다.) ‘부주이언’은 네 번 조회할 때 하는 일이고, ‘명시이공’은 한 번 순수할 때 하는 일이다. …… 당·우의 다스림은 고적考績일 뿐이었다. 경관京官은 3년마다 한 번 고적을 하고, 제후는 5년마다 한 번 고적을 하였다. 5년 한 번 순수하는 이유가 진실로 이 때문이었다. 실적을 보고하게 한 뒤에 고적하였다. …… 그 실적을 보고하는 법은 매우 치밀하고 매서워서, 멀리서 글을 올려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사자使者를 보내 대신 보고하지도 못하게 하며, 반드시 본인이 면전面前에 직접 와서 얼굴을 맞대고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였다. 이것을 ‘부주이언’이라고 한다. 부주할 때에는 천지는 듣기만 하고 사신史臣은 기록만 한다. 그러나 순수하는 해가 되면 그가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실적을 조사하는데, …… 모든 일이 참으로 보고한 대로 되었으면 수레와 복식으로 표창하고, 감히 거짓말을 한

자가 있으면 봉지封地를 깎고 작위를 강등하였다. 이것을 ‘명시이공’이라고 한다.¹⁹⁾

정약용에 따르면 관리의 공적(관리가 얻은 치도治道 성과)을 고찰하는 일에, 관리가 직접 임금의 앞에 가서 말로 실적을 올리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보고된 그 실적을 자세하게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현지에 직접 가서 현황을 답사한다는 것인데 고대에서 순수巡守라고 불린다. 순수는 바로 고적 과정에서 주요한 일이고 천하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는 유위有爲 정치에 대한 관점과의 연결이 있는 것을 보일 수 있다.²⁰⁾ 순수란 직접 현실을 접촉하고 고찰하는 일이다. 그렇게 실천적인 일을 수행하고 관리의 공적이나 죄를 잘 고찰해서 엄중하고 명확하게 상벌을 주기 때문에 고대의 관리체제가 굳이 강화되고 백성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천하가 태평 상태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는 (경문「요전하」 편 제20장) 순이 즉위하고 신하들에게 일을 맡기다가 ‘삼재고적, 삼고출척유명三載考績, 三考黜陟幽明(3년마다 고적하고, 세 번 고적하여 실적이 나쁜 자를 쫓아내고 실적이 뛰어난 자를 승진시킨다)’이라는 말을 하였다. 정약용은 이 말에 관해 설명하였다.

후세의 고적考績에서는 미관微官과 소리小吏 같은 직급이 낮고 불쌍한 사람만을 잡아서 고하의 등급을 매긴다. 그러나 순의 고

19) 정약용,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옮김, 앞의 책, 제2책, 222~223쪽.

20) 르영미번, 「정치는 무위無爲인가 유위有爲인가?—정약용과 레퀴돈의 관점 비교」, 『儒學研究』 4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 143~144쪽 참조.

적에서는 비록 원훈과 대신이라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 3년마다 반드시 고적하고 세 번의 고적 결과로 내치거나 승진시키는 절차를 일찍이 터럭만큼도 느슨하게 하지 않았던 것은 또 무엇 때문이겠는가? 진실로 관직은 오래 비워두어서는 안 되고 민사는 해이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²¹⁾

이 인용문에서 언급된 것은 고적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인 대상이다. 정약용에 따르면 요·순 시대에서 고적을 원훈이나 대신을 모두 포함한 관리에게 시행한다. 높은 직위를 차지하는 관리들, 심지어 ‘신성神聖하고 매우 지혜로우며 학문이 순수하고 공적이 현저한’ 관리조차 고적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3년마다 한 번 고적 당하고 3번의 고적 결과를 바탕으로 상·벌을 받아야 한다. 고적의 대상이 백관 모두를 확대되는 것은 고대의 고적이 참으로 엄격하고 분명하며, 고적이 요·순의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다. 정약용이 “요·순(堯·舜·禹)의 정치가 고적考績일 뿐이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게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요약하자면 『상서고훈』, 『우서虞書』에 대한 주해에서 산재한 설명을 통해 정약용 관점에서의 고적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볼 수 있다. 고적 시행 시간에 대해서는, 고대에서 고적은 3년마다 한 번 시행되고, 3번의 고적이 지나면 그 조사 결과를 근거해서 승진시키거나 강등시키는데 총 9년이다. 정약용에 의하면 고대 시대에 인구가 아직 밀집하지 않아서 다스리는 활동은 이러한 긴 시간 동안 시행되어야 결과가 날 수 있다.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고적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로 시행된다.

21) 정약용,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옮김, 앞의 책, 제2책, 356쪽.

첫 번째는 주적, 즉 관리가 공적을 자신의 입으로 아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수, 즉 천자가 제후의 땅에 직접 가서 주적의 진부眞否를 확인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공과 죄를 확정하다가 상벌하고 출척한다. 대상에 대해서는, 고적은 통치체계의 모든 관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약용에 의하면 순임금 시대에서 활동한 원훈·대신들조차 고적 당했다. 고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백성의 삶에 직접 끼치는 영향이 있어서 정치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당唐·우虞 시대 다스림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경세유표』의 고적제考績制

고적은 위와 같이 정약용의 『성서尙書』 해석서에서 총괄적으로 고찰되었다. 『상서』 해석서들을 작성한 6년 후인 1817년에서 정약용은 고적을 『경세유표』에서 제시한 경제학적 개혁안들에 들여놓았다.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에서 정약용은 『경세유표』의 ‘경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경제란 무엇인가? 관제·군현제·전제·부역·공시·물자비축·군제·과거제·해세·상세·마정·선법·영국지제(수도의 도시계획) 등을 현행 제도에 얹매이지 않고 경經을 세우고 기紀를 베풀어 우리의 오래된 나라를 새롭게 만들 것을 생각한 것이다.”²²⁾ 여기 주목할 만한 것은 정약용이 다스리는 활동(경제)을 개혁안들(“신아구방新我舊邦”)과 똑 같다고 생각한 것이다. 『경세유표』의 ‘유표’란 ‘신하가 죽을 때에 임금

22) 『自撰墓誌銘·集中本』(『定本』, 제3책, 279쪽). 국역: 전성건, 「다산 정약용의 경제학과 『경세유표』」, 다산학술문화재단 엮음, 앞의 책, 354쪽.

에게 올리는 글²³⁾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경세유표’란 사회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활동인 경세의 일에 대한 유언(즉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뜻이다. 『경세유표』의 구조는 『주례周禮』의 육관六官을 모방하는 것이다. 이는 정약용 이론 체계에서의 경세학이 경학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잘 보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세유표』는 11권으로 구성되고, 그중에서 제1권과 제2권은 관리체계를 재정리하는 것이다. 육조六曹는 육관 체계에 따르지만 각 직무에 대해 『주례』와 달린다. 제3권과 제4권에서는 천관이조天官吏曹에 대한 수제修制(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고적제는 바로 이 부분에 보인다. 제5권부터 제14권까지 이르는 10권(즉 『경세유표』의 가장 큰 부분)에서는 전제田制와 부세賦稅, 창름倉廩, 호적戶籍, 교민敎民 등과 같은 지관호조地官戶曹 안에 있는 제도들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제15권은 춘관예조春官禮曹와 하관병조夏官兵曹에 관한 개혁안이다. 『경세유표』에서 추관형조秋官刑曹와 동관공조冬官工曹에 관한 내용은 아직 빠졌다. 그런 이유로 정약용은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에서 『경세유표』 ‘편찬의 일을 마치지 못하였다’(未卒業)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도 『경세유표』는 당시 경세의 문제 여러 가지, 특히 전제田制와 관제官制에 대한 문제를 개혁하자는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는 저서이다.

고적은 『경세유표』에서 관제 개혁안의 한 부분으로 고찰되었다. 분량으로 보면 이것은 제3권과 제4권의 부분 중 가장 긴 부분이다. 이는 고적에 대한 정약용의 관심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경세유표』에서 제시된 고적은 『상서고훈』처럼 산재하고 개괄적이지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고적의 법, 고적제도이다. 게다가 다음과

23) 이을호, 「경세유표 해제」,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경세유표』 I, 민족문화추진회, 1984, 1쪽.

같이 살펴보는 것처럼 『상서고훈』에서 발전된 점이 많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고적 기간에 대해서는 정약용은 “경관京官과 외관外官이 공적功績을 세말歲末에 아뢰면, 공적을 고찰考察해서 입춘立春 날에 반포한다.”²⁴⁾라며, “매양 대비大比의 해가 되면, 춘분春分 날에 3년간의 공적을 통틀어 고찰하여 출척黜陟을 크게 시행한다.”²⁵⁾라 말하였다. 왜 일 년 한 번 고적을 수행하고 3년 한 번 출척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주례』, 『태재』에 ‘3년마다 못 관리들의 다스림을 계산하여 죄주고 상賞 준다.’하였으니, 이것은 성왕聖王의 영전令典이다. 근안: 당唐·우虞 제도에는 3년마다 공적을 고찰하였고, 세 번 고찰해서 출척했다. 대개 이때는 성왕聖王이 대代를 서로 이어 공적이 크게 발發해서, 그 다스림을 한 것이 모두 개혁開闢 이래로 처음 있는 큰 거조舉措였다. 물(水)을 다스리고, 전지田地를 정리하고, 부세賦稅를 평균하게 하고, 세공稅貢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일은 모두 3년 동안에 공을 이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9년을 지난 다음 이라야 출척을 시행했다. 그러나 삼대가 서로 이어서 천하 일에 모두 일정한 법이 있었은즉, 소소小小한 공죄功罪는 반드시 9년이 아니더라도 나타났다. 그러므로 3년이 변해서 1년으로 되었고, 9년이 변해서 3년으로 된 것인데, 모두 성인이 때를 따라, 알맞게 한 것이었다. …… 우리나라 제도는 당하수령堂下守令은 6년이 되어야 체임遞任 되는데, 또한 옛 법이다. 그러나 1년 동안에 두 번

24)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280쪽.

25)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281쪽.

고적하는 것은 옛 법이 아니다. 이제 옛 법을 따라 세말에 한 차례
고적하는 것이 곧 선왕의 법에 합치合致한다.²⁶⁾

그는 경전을 인용하여 고대에서 (『상서尙書』에서 기록된) 고적은 3년마다 한 번 수행하고 3번의 고적한 후에 출척을 시행하고, 『주례周禮』에서는 3년마다 출척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상서』와 『주례』에서 기록된 고적 기간 차이는 실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성인이 때를 따라 알맞게 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서』가 아니고 『주례』에서 기록된 제도를 모방해서 연말마다 한 번 수행하고 3년마다 한 번 출척을 크게 시행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경전들에서 제시된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결정하는 실제 상황, 당시의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고 적당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지 경전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고적의 대상에 대해서는, 정약용은 늘 강조하였다: 대상은 중앙정권의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관리부터 지방 관청의 낮은 관리까지의 백관 전부이다. 이 점에도 정약용이 『상서고훈』에서 미리 제시한 입론들을 다시 볼 수 있다. 순임금의 고적은 원훈이나 대신조차 대상으로 수행되고, 그 시대의 대신들이 모두 “신성神聖하고, 크게 슬기로우며, 학문이 순수純粹하고, 공적이 현저顯著하였는데”도 3년마다 반드시 고적했다. 왜냐하면 “진실로 천공天公은 비워 둘 수 없으며, 민생을 고달프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²⁷⁾ 정약용은 당시에 높은 관리에 대해 공

26)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281~282쪽.

27)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283쪽.

적을 고찰하는 법이 없으므로 “탐학貪虐하기를 제 마음대로 하고, 황음荒淫하기를 법도 없이 하나, 감히 묻는 사람도 없이 마침내 온갖 법도法도가 무너지고, 만백성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되어 구제할 만한 약藥이 없고, 시행할 만한 법이 없게 되었다.”²⁸⁾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는 정약용이 수년간 계속 고민하고 숙고하는 문제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상서고훈』이나 『경세유표』에서도 같은 말이 보일 수 있다. 당시에 시행된 고적 법을 비판하고 관리 전부에 대해 고적하지 않아서 부정부패가 자행되고 제도들이 무너지고 백성이 도탄에 빠진다고 말하였다. 『경세유표』에서 이러한 말을 한 후에 정약용은 “삼공이 비록 높다 하더라도 고적하지 않을 수 없다.”²⁹⁾라고 다시 강조하였다.

공적을 고찰하고 결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경세유표』에서 정약용은 중앙정권에 속하는 경관京官과 지방에서 다스리는 외관外官에 대한 적용 방법을 구별하였다. 경관과 외관 속에 또한 등급과 품계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다른 고적 법이 있었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관의 경우에는, 정약용은 먼저 조정의 최고 관직인 삼공三公·삼고三孤³⁰⁾를 살펴보았다. 가장 높은 관직의 공적을 고찰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가? 정약용에 의하면 이러한 일을 할 자격이 있는 기관은 중추부中樞府이다. “삼공과 삼고가 자신自身的 공적을 아뢰면, 중

28)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283쪽.

29)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283쪽.

30) 삼공·삼고: 『경세유표』, 「천관이조」 제1에 보인다. 조정에서 가장 높은 관직이다. “삼공의 직무는 치도治道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經營하여 하늘의 조화를 삼가 밝히는 것이다.” 삼공은 의정부議政府의 세 대신인 영의정領議政과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이고, 삼고는 도찬성都贊成과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이다.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47쪽 참조.

추부中樞府에 내려서 고찰考察토록 한다.”³¹⁾ 중추부란 병조兵曹에 속하는 높은 기관이고 으뜸 벼슬의 품계는 정1품이며, 다른 벼슬 중에 이전에 삼공·삼고의 위치를 자치한 사람도 있어서 그들이 현 삼공·삼고의 공적을 고찰할 수 있다. 중추부를 이끄는 관리들이 또한 의정부에서 고적 당한다. 그러므로 제일 높은 관리들의 고적은 품계가 같은 벼슬들에 의해 수행된다. 이는 『상서고훈』에서 기록된 정약용의 주해 하나와 같은 것이다: “고요와 우 두 사람은 작위가 가장 높고 덕망이 가장 융성한 사람들인데, 다시 누가 있어서 감히 이들의 업적을 평가하겠는가? 이것이 직접 제의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 고적하는 이유이다.”³²⁾ 『경세유표』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정약용은 또한 이 주해를 인용하였다. 즉 그는 『서경』 주해를 근거하여 가장 높은 관리들에 대한 고적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삼공 삼고 아래의 관리들에 대해서는 고적의 일은 더 높은 기관과 그들의 소속 기관에서 시행된다. 예를 들면 상대부上大夫는 육조에서 고찰 당하고, 영문營門들의 정경正卿은 의정부에서 고찰 당하며, 정경이라면서 군인이면 중추부에서 고찰 당하고, 아경亞卿 이하의 벼슬에 대해서는 “육조의 판서가 그 조曹의 중·하 대부大夫와 합좌合坐해서 고찰한다.”³³⁾ 이처럼 가장 높은 관리부터 낮은 관리까지의 모든 벼슬이 공적을 아뢰고 고찰 당해야 한다. 기관들의 이끄는 사람들이 속하는 관리들에 대해 고적을 책임지고, 그 으뜸 사람들은 더 높은 기관에서 고적을 당한다.

고적 방법에 대해서는, 정약용에 따르면 첫 번째는 공적을 아뢰는 것

31)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282쪽.

32) 정약용,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옮김, 앞의 책, 제2책, 410쪽.

33)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289쪽.

이다. 공적 보고는 바로 고적의 묘리妙理라고 생각하였다. 고대에서 공적 보고는 곧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이다. 『상서고훈』에서 정약용은 미리 이것을 강조하였다. 『경세유표』에 이르러, 현실을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장書狀으로 아뢰는 것이 말로 아뢰는 것의 엄혹嚴酷함만 못하나, 고금古今이 다르니 경관은 위로는 대신에서 아래로는 말관末官까지 모두 문서書狀로 아뢰는 것을 허가한다.”³⁴⁾ 즉 관리가 공적 보고서(서장書狀)를 쓰고 위의 기관에 올려 고찰 당한다는 법을 허가한다. 이 관점은 경전의 원칙과 실정 참작을 합치하고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장功狀을 올리고 고찰 당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정약용의 제안에서 새로운 것은 바로 그 공장의 내용이다. 『경세유표』에서 그는 삼공·삼고나 이조판서吏曹判書, 호조판서戶曹判書, 승정원承政院, 사간원司諫院, 사헌부司憲府 등의 관리들 각 등급의 공장을 작성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그 공장들은 실제로 하던 일을 자세하게 보고하는 것이라야 한다. 예를 들면 영의정은 “아무 달 아무 날, 유하정流霞亭에 놀이 잔치하라는 명을 간해서 중지시켰다. …… 아무 달 아무 날, 열두 성에 관문關文을 발송하여 사자士子가 억울하게 과거科擧에 떨어졌거나 문학은 넉넉한데 과거 선발에 누락漏落된 자를 특별히 염탐廉探하고, 거인舉人과 재주를 비교한 다음, 그 정원定員을 고쳐 개정改定했다.”³⁵⁾ 정약용은 높은 관리가 공장에서 반드시 1년 동안 하던 일을 27가지를 뽑아서 아뢰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등급이 더 낮은 벼슬에 아뢰어야 할 조목은 더 적고 행공行公한 시간이 적으면 보고해야 할 조목 수도 줄인다. 보고 내용은 자신이 맡은 직무 범위 안에서 이루

34)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285쪽.

35)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286쪽.

어진 일이고 그것을 공적으로 여긴다. 예를 들면 “육부六부와 육학六學³⁶⁾에서는 백성에게 효제孝弟하는 도리를 가르친 것으로써 공적을 삼는다. …… 사헌부·감찰원·금제사禁制司·제례감齊禮監 등은 간사함을 탄핵하고, 횡포橫暴를 금단하며, 소란騷亂을 그치게 하고, 민심民心을 안정시킨 것으로 공적을 삼는다.”³⁷⁾ 그리고 관상감觀象監이나 삼의사三醫司, 사역원司譯院, 산학算學, 율학律學 등과 같은 기관에서 “기예로써 벼슬한 사람”은 고적 대신에 고예考藝(기예를 고찰함)를 한다. 이처럼 공적은 관리 각자의 맡은 직무에 따라 고찰하는 것이다. 이점은 『상서고훈』에 있는 고적에 대한 이론에 보이지 않으므로 주의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공장을 올리고, 고적 일을 담당한 벼슬은 살펴보고 평가한다. 평가하는 일은 관리의 품계에 따라 다르다. 가장 높은 관리에 대해 고적 등급으로 분리하는 것이 없고, 아래의 관리들은 등급 3가지(상중하)나 6가지, 9가지(상지상, 상지중, 상지하, 중지상, 중지중, 중지하, 하지상, 하지중, 하지하)로 구분된다. 그다음에 이 결과에 근거하여 관리가 상응하는 상이나 처벌을 받는다. 3년인 3번의 고적 이후에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출척을 수행한다.

지방에서 정치를 다스리는 외관들에 대해서는, 정약용은 고적이 더욱 엄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벼슬자리들을 고찰하고 상당하는 고적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직위가 높고 수량이 적은 순찰사巡察使와 절도사節度使들에 대해서는 고적 일은 “정부와 중추부가 합좌合坐해서

36) 육부와 육학은 정약용의 개혁안에서 지관호조에 속하는 교육기관들이다.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61~63쪽 참조.

37)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293쪽.

고찰하는데, 그 성적成績은 오직 5 등으로 분간한다.³⁸⁾라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순영巡營과 중군中軍의 비장裨將이나 우후虞候, 변장邊將 등과 같은 군대의 관리, 그리고 능陵·묘廟의 관원, 토관土官, 사고史庫의 관원, 지방 관청의 관원들은 서로 다른 고적의 방법이 있다.

정약용은 외관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관직이 바로 수령守令이었다. 그 관심의 이유에 대해서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가의 안위는 인심人心의 행배向背에 달렸고, 인심의 향배는 백성의 휴척休戚에 달렸으며, 백성의 휴척은 수령의 현부賢否에 달렸고, 수령의 현부는 감사의 포폄褒貶에 달렸으니 감사가 고과考課하는 법은 바로, 천명과 인심이 향배하는 기틀(機)이며, 국가의 안위가 결판되는 바이다.³⁹⁾

수령은 “주州, 부府, 군郡, 현縣의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⁴⁰⁾ 즉 지방의 우두머리이고 지방의 행정 일을 모두 다스리는 관리이다. 수령을 고공考功하는 일은 수령에게 작용해서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시해야 한다. 『경세유표』에서 정약용은 먼저 수령의 고적 기간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당시에 수령은 1년마다 2번이나 공적을 고찰 당하고 3등만 구분된다. 정약용에 의하면 1년 2번의 고적은 너무 자주 하는 일이고 3등만 구분하는 것은 너무 소략한 것이다. 그는 매년 말에 한번 고적하고 9등으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38)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299쪽.

39)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300쪽.

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령」(<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1317>).

정약용이 낸 수령의 고적 일 중 가장 중요한 제안은 바로 고적 9가지의 강령綱領이다. 그에 따르면 수령의 공적을 고찰할 때 율기律己와 봉공奉公, 애민愛民,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 9강령을 근거해야 한다. 9강령 안에 각각 6조목이 있고 모두 54조목이 된다. 이를 정리하면 오른쪽의 표와 같다. ▶

예를 들면 호전의 6조목은 아래와 같다.

1. 백성을 교육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지관地官이 교관이었는데 후세에는 오로지 재부財賦만 관장함은 예禮가 아니다. 향약鄉約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오륜五倫을 가르쳐서 우매愚昧한 자는 깨우쳐 가르치고, 강포強暴한 자는 징계懲戒해 가르친다.
2. 전정田政에 대한 것이다. 공전을 감동함은 수령의 책임이다. 사전도 누락된 것을 밝혀 내고, 묵은 것을 조사한 다음이라야, 상하에 해가 없을 것이다. 또 공전公田을 수확했으면 조운하는 일도 늦출 수 없는 것이다.
3. 부역에 대한 일이다. 부역을 고르게 하려면 먼저, 호적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인구와 물산이 해마다 같지 않기 때문에, 비록 9부賦가 발랐으나 세액의 가감이 해마다 같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다. 그 공평하지 않고, 고로지 못한 자는 죄가 있다. ……
4. 시조市糶하는 일이다. 사창社倉 제도는 조금만 변경해도 간사한 짓을 부릴 수 있는 구멍이 쉽게 생기는데, 상평법常平法

1. 율기 律己	칙궁飭躬 (자신을 단속하는 것)	여행礪行 (행실을 부지런히 닦는 것)	상정觴政 (술 마시는 것 정하는 규칙)	색계色戒 (여색을 조심하는 것)	감권減眷 (권술을 줄이는 것)	병객屏客(문객을 물리치는 것)
2. 봉공 奉公	첨하瞻賀	선포宣布	보문普聞 (보고하는 것)	공납貢納	예제禮際 (예우하는 일)	왕역往役
3. 애민 愛民	양로養老 (늙은이를 봉양하는 것)	자유慈幼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	진궁振窮 (궁곤한 자를 진휼하는 것)	애상哀喪 (상사를 애호하는 것)	관질寬疾 (질병을 위문하는 것)	구재救災 (재난을 구제하는 것)
4. 이전 吏典	거현擧賢 (어진 이를 천거하는 것)	공사貢士 (선비를 추천하는 것)	속리束吏 (아전을 단속하는 것)	용인用人 (착한 사람을 등용하는 것)	문첩文牒 (문서를 꾸미는 일)	상벌賞罰
5. 호전 戶典	교민敎民 (백성을 교육하는 것)	전정田政	부역賦役	시조市糶	농정農政	진휼振恤
6. 예전 禮典	제사祭祀	빈객賓客	예제禮制	예속禮俗	흥학興學 (학교를 진흥시키는 것)	부문數文 (문학을 널리 펼치는 일)
7. 병전 兵典	양병養兵 (군사를 양성하는 일)	권무勸武 (무술을 권장하는 일)	수병修兵 (병기를 수선하는 일)	목마牧馬 (말을 치는 일)	조정調丁 (군정을 조정하는 일)	비환備患 (외환에 대비하는 일)
8. 형전 刑典	청송聽訟 (송사를 판결하는 것)	단옥斷獄 (옥사를 결단하는 일)	신형愼刑 (형벌을 조심하는 것)	금제禁制 (금단하는 제도)	양형量衡	제해除害 (민해를 없애는 것)
9. 공전 工典	산림山林	천택川澤	해우廨宇	성곽城郭	도로道路	주차舟車 (배와 수레에 대한 일)

(『경세유표』의 9강령 54조목에 따른다)

도 그러하다. 또 시장 가게에 무판^{無販}하면서 마음대로 물가를 올리는 자는 금함이 마땅하다.

5. 농정^{農政}에 대한 일이다. 농사를 가르치고, 농사를 권장^{勸獎}하는 것은 다스림을 맡은 자의 정사이다. 나무를 심고, 짐승을 기르는 일에 더욱 힘쓸 것이다. 뽕나무·산뽕나무·닥나무·옷나무·느릅나무·버드나무·가래나무·오동나무와 온갖 과실·온갖 재목 및 6축^{六畜}을 사양^{飼養}하는 정사는 모두 힘을 써야 한다.

6. 진휼^{賑恤}하는 일이다. 흉년에는 진휼하는 것이 가장 큰 정사이다.⁴¹⁾

‘호전’이란 인구나 전지, 부세, 화폐, 식품 등을 관리하는 원칙이다. 정약용이 제시한 위의 6조목은 이러한 영역에서 수령이 관리하는 일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강령과 조목들도 그렇다. 위의 9강령 54조목은 수령이 하는 일의 규정이나 수준과 같고 수령의 다스림을 포괄하는 것이다. 정약용에 의하면 이 54조목은 ‘오히려 간략하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수령이 외워야 하는 7사^{七事}보다 더 완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조정에서 원 네 조목을 여러 고을에 반포하여 준행^{遵行}토록 하고, 수령들은 오직 삼가 봉행하다.”⁴²⁾라고 제안하였다. 이 54조목은 고적을 수행할 때만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수령의 직무를 구체화하는 것과 같다고 보일 수 있다.

41)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306~307쪽.

42)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310쪽.

고적 일을 위해 공장을 작성할 때 수령은 위의 9장령을 전적으로 포괄한 27조목만 쓰면 된다고 말하였다. 공장을 올린 후에 감사監司가 살펴보고 그 9장령에 따라 27조목 중 9조목을 뽑아서 각 조목을 장臧(좋다)이나 부臧(안 좋다)로 평가하고 9등 중 상당한 등으로 매긴다. 그 후에 계본(啓本)을 조정으로 올린다. 『경세유표』에서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 정약용은 옥과현감玉果縣監과 장성군수長城郡守, 나주목사羅州牧使의 고적 계본을 들었다.

경관과 같이 외관의 고적은 1년에 한 번 수행하고 3년 후에 출척을 위한 큰 평가를 수행한다. 여기에서 다른 점이 생긴다. 정약용의 제안에 따르면, “3년마다 세 차례 고적을 대비大比하는데, 수령은 이미 체대遞代되었거나 체대되지 않았음을 물론하고 모두 서울에 올라와서 소접召接을 기다렸다가 주적한 서장을 직접 아뢴다.”⁴³⁾ 이는 분명히 『서경』에서 기록된 직접 주적奏績의 일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정약용은 원래 이 일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년 동안 주적한 서장과, 3년 동안 고적한 계본을 수령이 모두 안고, 연석筵席에 올라, 꿇어앉아서 읽다가 혹 임금이 하문下問하면 곧 연중筵中에서 말을 부연敷演하여 아뢴다. 이것은 요堯와 순舜이 날마다 여러 수령을 면접하던 법이다. 이 법이 엄혹하고 능렬凜烈해서, 후세의 소략疏略하고 해이解弛한 법도와는 같지 않다. 백 번이나 고요히 연구한 끝에 비로소 분명히 깨칠 수 있었다.”⁴⁴⁾

『상서고훈』에서 정약용은 직접 주적의 효과를 여러 번이나 강조하였고, 『경세유표』에 경관의 고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것을 다시 말하였다. 경관에 대해서 직접 주적이 없지만, 외관 수령에 대해서 이러한

43)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318쪽.

44)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318쪽.

일은 반드시 시행된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위에 언급하듯이 수령의 다스림은 민생에게 영향을 직접 끼쳐서 국가의 안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령 고적은 더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상서고훈』에서 정약용은 순수巡守라는 일을 고적의 중심 하나로 여겼다. 『경세유표』에서는 순수 일이 없지만, 수령 고적 중에 직접 주적한 후에 진행되는 순수와 같은 절차가 하나 있다.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접이 끝나면, 이에 암행어사 12사람을 파견派遣한다. 12성에 나누어 보내서 그 공과 죄의 허실虛實을 고찰한다.”⁴⁵⁾ 임금이 직접 가서 고찰하는 대신에 사자를 지방으로 보내 비밀로 수령이 주적한 공적과 감사監司의 평가의 허실을 고찰하게 한다. 그러므로 수령의 공과 죄를 확정하기 위한 근거가 하나 더 있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수령의 허위보고와 감사의 위장평가 의도(만약 있으면)를 경고하는데, 또 한편으로 상벌과 출척의 일을 더욱 엄밀하게 수행될 수 있게 보증하는 것이다.

직접 주적과 암행어사 파견 외에 『경세유표』에서 정약용은 고적 작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법 하나 더 제시하였다. 이는 평가 결과를 고정된 등급으로 분간하고 각 급에 인원수를 억지로 정하는 것이다. 고적 결과 등급 속에서 인원수를 정하는 작업은 경관(사士 이하부터)과 외관 모두 적용된다. 예를 들면 육조와 중앙 관청에 소속된 3등급의 사士를 9등급으로 분간하고 각 등급에서 정원이 있다. 이조吏曹에 사가 48명이 있으면 가장 높은 등급인 상지상上之上에 두는 사람은 1명이고, 상지중上之中의 급에 1명, 상지하上之下의 급에 1명, 중지상中之上의 급에 3명, 중

45)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318쪽.

지중中之中の 급에 36명, 중지하中之下の 급에 3명, 하지상下之上의 급에 1명, 하지중下之中的의 급에 1명, 하지하下之下的의 급에 1명을 두는 것이다.⁴⁶⁾ 즉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으로 평가되는 명수는 적이고 중간 등급에 두는 명수는 많은데, 그 수량은 고정된다. 고적할 때마다 이조의 사 48명 가운데 반드시 1명은 상지상으로 평가되고 1명은 하지하로 평가되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등급을 공식으로 두는 안 되고, 고정된 명수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관과 수령에 대해서도 그렇다. 정약용에 따르면 이 방법은 관리들을 분발하고 더 노력하게 만들며, 부패나 직권남용이라는 폐해를 낳는 감사들의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하게 만들 수 있다. 정약용은 이 방법의 효율성에 대해 매우 확신하였다. 그는 “내가 남방南方에 귀양 가서 15년 동안 있으면서 밤낮으로 상량商量한 것이 오직 이 방법이다. 시행해 보아서 효과가 없으면 내가 그 허물에 책임지려 한다.”⁴⁷⁾라 말하였다.

임금 앞에서 직접 주적하는 것과 암행어사를 지방으로 파견하는 것(고대에서 이 작업의 형태가 임금의 준수巡守였음)은 『상서』에서 기록된 방법인데 『상서고훈』을 작성할 때 정약용은 이 방법들을 매우 강조하였다. 평가 등급에 두는 명수를 정하는 것은 정전에 없고 정약용의 창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고적을 개혁안 하나로써 살펴보면 정전을 수용하는 점과 정약용의 별도로 발전하는 점을 보일 수 있음을 말할 수 있다.

위의 분석에 따라, 『상서고훈』의 고적에 대한 이론들과 비교하면 『경세유표』에서 제시한 고적제는 더 많이 체계적이고, 상세하고 실천적인 것이라고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정약용이 『상서고훈』의 고적 이

46)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294쪽 참조.

47)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I, 317쪽.

론에 근거하여 『경세유표』의 체계적이고 개혁적인 고적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 정약용의 학문에 경학·경제학 연결성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다.

4. 정약용 사상 속에 있는 경학·경제학의 관계

고적은 정약용 사상체계에서의 경학·경제학 관계를 예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학 작품인 『상서고훈』에서 상당히 전면적으로 언급된 후에 경제학 작품인 『경세유표』에서 관제 개혁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위의 분석들은 고적이 경학적 이론부터 경제학적 개혁안으로 어떻게 발전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서고훈』에서 정약용은 백관 전부 고적 일을 강조하였는데, 『경세유표』에서 이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게다가 위에서 아래까지 통치체계의 관직을 모두 살펴보고, 특히 수령이라는 관직처럼 민생과 관리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관직에 관심을 두었다. 또는 고적 방법에 대해서는, 『상서고훈』에서 직접 주적과 순수라는 일에 대해 개괄적으로 언급하였는데, 『경세유표』에서 관리를 경관과 외관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적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경관은 직접 주적이 없고 오히려 보고서만으로 주적할 수 있지만, 보고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외관은 공장도 작성하는 일이 있고 3년마다 직접 주적도 있으며, 암행어사의 조사로 재고찰을 당하는 일도 있다. 공장을 고찰하는 방법과 등급을 구분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상서고훈』부터 『경세유표』까지 고적 이론을 구체화하고 실제화하는 과정을 잘 보일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정약용 사상 속에서의 경학과 경제학의 밀접한 관계

는 잘 나타났다.

위에 언급한 듯이 경학과 경세학의 관계는 유학자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실학자로서 정약용의 경학은 주자학의 경학과 다르고 그의 경세학도 다르다. 그의 경학은 형이상학이나 이기理氣, 심성心性, 사단四端·칠정七情 등에 집중하고 수신修身 문제에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 문제에 많이 주목하였다. 육경사서六經四書를 주석하는 과정에서 정약용은 유교의 중요한 정치 경전인 『서경書經』에 특별한 관심을 두는 것⁴⁸⁾은 그의 이념적 지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게다가 『상서尙書』가 제시한 문제 중에서 고적考績과 같은 경세학적 문제들을 집중하게 논의하는 것은 또한 그의 경학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 외에, 정약용의 경세학은 성리학자들의 경세학과 매우 다르다. 제가·치국이나 왕의 수신, 천명, 교화,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 흉년이 들 때 조세를 면제하는 정책 등과 같은 논의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정약용의 경세학은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방안 체계이다. 이는 『경세유표』에서 분명히 보일 수 있다. 김문식 교수가 말한 듯이 “『경세유표』가 당시에 시행되던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마련한 개혁안을 정리한 책”⁴⁹⁾이다. 이러한 경세학은 “현행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경經을 세우고 기紀를 베풀어”서 사회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신아구방新我舊邦’의 목적으로 향하는 것이다.

정약용 사상체계 속에 있는 이러한 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약

48) 백민정, 『정약용의 철학(주희와 마테오리치를 넘어 새로운 체계로)』, 이학사, 2007, 364쪽 참조.

49) 김문식, 『『경세유표』의 인재 양성과 관리 선발』, 다산학술문화재단 엮음, 앞의 책, 291~292쪽.

용의 실학적 경학이 그의 개혁적 경제학에 사회나 사회 질서, 사회 운영 방법, 많은 영역의 수준 등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을 제공하였음을 보일 수 있다. 그 이상적인 모델은 바로 요堯·순舜 시대와 그 시대의 수준과 제도이다. 위에 분석한 고적제에 대해서 정약용은 요·순 시대의 고적을 이상적으로 여겼다. 그는 요임금의 고적법을 대법이라고 하고, 고적이 관리들에게 모두 시행되는 것이나 순舜임금 앞에서 우禹는 직접 공적을 보고하고 고요皋陶는 살펴보는 직접 주적과 가장 높은 관리들이 주적하는 방식,⁵⁰⁾ 순수巡守 등과 같은 요·순의 고적 원칙이나 방법을 높이 평가하였다. 『상서고훈』에서의 고적에 대한 논의든 『경제유표』에서 고적제를 개혁안 하나로 세우는 것이든, 정약용은 그러한 평가와 모두 일치하였다. 다른 영역에 대한 논의들도 그렇다-주공周公이 만든 제도와 요·순의 치국지도를 이상적으로 여긴 것이다. 정약용의 경제학은 사회 전체를 개혁시키고 ‘오래된 우리 국가를 새롭게 만들다’라는 목표에 향해서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 이상적 모델이 필요하다. 정약용은 경전에서의 이제二帝·삼왕三王 시대 즉 고대 시대의 제도들에 그 모델을 찾았다. 이러한 이유로 정약용의 경학과 경제학은 모두 ‘복고復古’라는 색채를 띠게 되었다.

이상적 모델 그 외에 수제치평에 집중하는 정약용의 경학은 또한 연관된 이론을 많이 발전시키고 경제학에 세계관과 철학적 이념, 인륜과 정치에 대한 관념 등과 같은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는 정약용 사상체계 속에서의 경학이 경제학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적제 경우에는 정약용이 경전 해석을 할 때 확립한 인성人性이나 수양修養 등에 대한 이론이 고적의 중요성에 대한 관점이나 수령守令

50) 정약용,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옮김, 앞의 책, 제2책, 413, 415~416쪽 참조.

고적에 관심 두어야 한다는 관점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상서고훈』에서 정약용은 치국·평천하 즉 정치 활동이 유학자의 도道を 실천하는 이상적인 길이고 정치 활동 중 가장 큰 일이 바로 지인(知人)과 안민(安民)이라고 논의하였다. 지인이란 사람을 알아본다는 뜻이고 여기서 ‘인’은 곧 다스림의 책임을 지는 관리나 사대부 등이다. 인민이란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는 뜻이다. 지인이라는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선발과 현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선발을 바르게 하고 현인이 알려질 수 있기 위해서 고적은 핵심의 방법이다. 심지어 정약용은 지인과 안민이 정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성(人性)의 분야까지 들어가서 깊게 논의하였다. 그는 인간이 욕망이 많이 있는데 그중 큰 욕망은 바로 부(富)와 귀(貴)이다. 부는 평범한 사람의 물질적 욕구이고, 귀는 사대부와 귀족, 벼슬하는 사람의 명예나 신분의 욕망이다. 지인과 안민은 바로 이 두 욕망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고적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는 것은 정약용 사상 체계의 인성론적·수양론적·정치론적·경제학적 이론들의 긴밀하고 일관된 연결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한 경학적 이론에 의존하므로 정약용의 경제학은 단단한 바탕으로 건립되고 개혁안들은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정약용의 경제학이 경전에 있는 모델을 절대적으로 모방하는 것이나 경전에 있는 원리와 정책을 현실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실천에 근거를 두고 현실 개혁이라는 실천적 목표에 향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당시의 실제 상황을 살펴보고 어떤 것을 바꿔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경전을 적용해야 하여, 경전의 이론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야 하는 것을 찾았다. 고적법 개혁안에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점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정약용은 조선의

당시 상황에 의하고 고적이 3년에 1번 시행되고 3번 후에 상·벌 내리는
요·순의 법에 따르지 않고 1년에 1번 시행되고 3번 후에 상이나 벌을 내
리는 것은 마땅하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직접 주적이라는 것도 관리들
모두가 아니라 수령들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또는 『상서고훈』에서 중요
시되는 ‘순수巡守’에 대해서는 현실을 살펴보고 암행어사를 보내고 지
방에서 직접 조사해서 현실과 주적의 말과 비교하라는 다른 방법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수령 고적 9강령이나 평가 등급의 정원 등과 같은 정
약용의 개혁 제안 여러 가지는 경전에 없고 완전히 현실을 살피고 제시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정약용은 경전을 절대 따르는 것이 아니고 경학
은 경제학 개혁안들의 유일한 기초가 아닌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심지어
그러한 개혁안을 세울 때 그의 경학은 어느 정도 갱신될 수 있고 현실적
색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실에 근거하고 개혁 목
표에 향하는 것은 정약용 경제학을 위에 말한 듯이 ‘복고’의 형태가 있
지만 실제로 새롭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었다.

5. 결론

정약용의 개혁안 중 하나인 고적제는 정약용 사상이나 조선 중세의
정치사상을 연구하는 데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의 관점을 살펴보고 현
재 인사관리를 위한 교훈을 찾는 것에 대해 흥미로운 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정약용의 사상 속에 있는 경학·경제학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
에서 고적은 구체적이고 마땅한 예로 여겨질 수 있다. 고적은 대표적

경학 작품인 『상서고훈』에서 총괄적으로 언급된 후에 대표적 경세학 작품인 『경세유표』에서 중요한 개혁안이 되기 때문이다. 『상서고훈』의 고적에 대한 이론과 『경세유표』의 고적법을 통해 보면, 정약용 사상의 경학과 경세학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향을 서로 끼친다고 말할 수 있다.

정약용은 경적을 연구하고 세계관과 인생관인 만사만물의 본질에 대한 시선과 견해를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당시의 현실을 살펴보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경전에서 그러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았다. 고적을 통해 이러한 점은 쉽게 보일 수 있다. 고적은 무엇의 본질을 살피는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정치 이론 중 한 부분이고, 게다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부분이다. 정약용에 의하면 요순의 정치는 바로 진리이고 사회를 태평한 세상으로 만든 것이라서 그것에서 성인의 깊은 뜻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았다. 고대 시대를 본보기로 삼는 것은 바로 경세학 이론들에서 나타난 ‘수사지구학洊泗之舊學’으로 돌아가자는 정약용 사상의 성격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약용은 항상 현실을 의지로 삼고 당시 실제적 환경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해서 그의 개혁안들은 복고적이나 보수적인 성격이 없고 오히려 (봉건의 범위 안에) 새로운 세상 즉 사회개혁을 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학이 경세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유학자 사상의 원래 특징이지만, 정약용의 사상체계에서는 경학·경세학의 관계는 다른 점이 있었다. 경학적 지식은 전통(성리학)보다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새롭게 세우고,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심지어 현실을 의지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경학적 지식은 경세학적 개혁안들의 이론적 기초가

된 것이다. 사회를 경영한다는 경제학적 관점들은 그 경학적 이론(철학, 정치학)을 기초로 삼고 동시에 현실에 굳이 근거하여 세워져 타당성이 있고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논문투고일 2024년 8월 24일, 심사확정일 2024년 9월 30일, 게재확정일 2024년 10월 18일)

참고문헌

원전

- 丁若鏞, 『定本 與猶堂全書』 2~3책, 11~12책, 24~26책,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 ,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옮김, 『상서고훈』 1·2, 학자원, 2020.
- ,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경세유표』 1, 민족문화추진회, 중판 발행 1984.

논문

- 김문식, 「『경세유표』의 인재 양성과 관리 선발」, 다산학술문화재단 엮음, 『다산 경세학 연구』, 도서출판 사암, 2023.
- 김태영, 「『경세유표經世遺表』에 드러난 다산茶山 경세론經世論의 역사적 성격」, 『퇴계학보』 129, 퇴계학연구원, 2011.
- 김 호, 「다산 정약용의 『상서』 재해석과 현능론—왕도의 사공(事功)과 고적(考績)」, 『한국학연구』 7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4.
- 르영미번, 「정치는 무위無爲인가 유위有爲인가?—정약용과 레쥘론의 관점 비교」, 『儒學研究』 第47輯,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
- 박찬영, 「『상서고훈』 「우서」를 통하여 본 다산의 정치사상」, 『동양철학』 25, 한국동양철학회, 2006.
- 배병삼, 「다산의 유학세계: 고적제(考績制)의 정치학」,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2.
- 백민정, 『정약용의 철학(주희와 마테오리치를 넘어 새로운 체계로)』, 이

학사, 2007.

_____, 「정약용 『經世遺表』 구성의 철학적 원리: 六經四書에 대한 다산의 經學 註釋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37, 한국동양철학회, 2012.

이영훈, 「다산의 경세론과 그 경학적 기초」, 『다산학』 1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0.

이우성, 「다산의 경학과 경세학의 관계」, 다산학술문화재단 엮음, 『다산 경세학 연구』, 도서출판 사암, 2023.

전성진, 「다산 정약용의 경학과 『경세유표』」, 다산학술문화재단 엮음, 『다산 경세학 연구』, 도서출판 사암, 2023.

조성을, 「『경세유표經世遺表』 연구의 제문제」, 다산학술문화재단 엮음, 『다산 경세학 연구』, 도서출판 사암, 2023.

한국고전종합DB, 국역 『自撰墓誌銘(集中本)』(<http://db.itkc.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령」(<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1317>)

국문요약

본 논문은 정약용의 대표적 경학 작품인 『상서고훈尙書古訓』과 대표적 경세학 작품인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의 고적考績을 통해 정약용 사상체계 속에 있는 경학-경세학 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서고훈』에서 정약용은 요·순·우·고요 등의 정치 활동과 사상을 주석할 때 고적을 고찰하였다. 그는 고적이 요·순 정치의 ‘대정대법’이라고 보여주었다. 고적은 3년 1번 수행되고, 3년 후에 상·벌을 내리고 출척한 것이다. 가장 높은 위치부터 낮은 위치까지 백관 전체에게 수행되었다. 고적 방법은 관리와 제후가 임금 앞에서 말로 자신의 공과 죄를 직접 올린 다음 임금이 제후국에 직접 가서 주적의 말을 조사하는 것이다. 『경세유표』에 이르러 고적은 관제 개혁안 중 하나로 만들었다. 정약용은 『상서尙書』와 『주례周禮』에서 기록된 고적을 근거해서 조선 당시에 고적이 1년 1번에 수행되고 3년에 출척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고적은 조선 당시처럼 미관소리에만 아니라 관리 전체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정약용은 경관과 외관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고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외관 고적에 대해서는 그는 각 지방의 우두머리인 수령의 고적에 관심을 많이 두어 다스리는 활동을 포괄하는 수령 고적 9 강령 54 조목을 제시하였다. 그는 또한 평가 등급을 확립해야 하고 각 등급에 두는 명수는 반드시 바뀌지 못한다고 하였다. 3년 후 수령은 직접 조정에서 임금 앞에 공적을 보고해야 하고, 그 뒤에 조정은 암행어사를 지방에 보내고 주적 말의 허실을 조사하는 규정을 세웠다. 『상서고훈』에서

의 비체계적인 논점부터 『경세유표』에서의 완전한 개혁안으로써 고적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정약용 사상 속에 있는 경학과 경세학과의 긴밀한 연결을 볼 수 있다. 정약용의 경학과 경세학 자체는 성리학자들의 경학-경세학과 다른 사실이다. 그의 경학은 제가-치국-평천하라는 정치적·경세학적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고, 그의 경세학은 바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개혁안들이다. 이러한 실천적 경학은 요·순 시대 제도와 수준 등과 같은 이상적 모델을 개혁의 경세학에 제공하였다. 또한, 인성론적·수양론적·정치적 이론들을 제공해서 경세학을 탄탄한 이론적 바탕으로 개혁 논의들을 세우게 만들었다. 그 외에 정약용의 경세학은 경전의 이론만이 아니라 현실 사정도 근거해서 한편으로 경학을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경세학 자체는 새롭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다산 정약용, 경학, 경세학, 고적, 『상서고훈』, 『경세유표』.

Abstract

Discussions about ‘Achievement Investigation(考績)’ in *Old Lessons of Book of Documents*(『尙書古訓』) and *Testaments on Study of Governing*(『經世遺表』)

Luong My Van

Institute of Philosophy,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connection between classical learning and study of governing in Jeong Yak-yong’s thought, by considering ‘achievement investigation(考績)’ in *Old Lessons of Book of Documents*(『尙書古訓』)—his typical work on classical learning, and *Testaments on Study of Governing*(『經世遺表』)—his representative work of study of governing. In *Old lessons of Book of Documents*, Jeong Yak-yong analyzes the investigation of officials’ achievements in the interpretations on political activities and thoughts of Yao(堯), Shun(舜), Yu(禹), Gao Yao(皋陶). He points that the achievement investigation is ‘great way’ of Yao-Shun’s politics. This investigation is conducted every three years, and after three times the reward and punishment, the promotion and demotion are carried out. This investigation is applied to all officials in the bureaucracy. The investigation of officials’ achievements is conducted as follows: the mandarin comes before the King and directly reports on his

own achievements. After that the King embarks an inspection tour to areas to verify those reports. To *Testaments on Study of Governing*, the achievement investigation is built into one of the plans for bureaucratic reform. Jeong Yak-yong, based on the achievement investigation recorded in *Book of Documents*(『書經』) and *Rites of Zhou*(『周禮』), thinks that in the contemporary Joseon, the achievement investigation should be conducted every one year and after three times the reward or promo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his thought, the achievement investigation must be applied to all officials, not only to the low-ranking ones as the current regulation. Jeong Yak-yong proposes investigation methods applied to central and local officials. In the investigation of local officials' achievements, Jeong Yak-yong pays a special attention to the investigation of Su-ryeong(守令)—the leader of each local area. He proposes the so-called “9 guiding principles” with 54 articles to investigate Su-ryeongs' achievements. He also states that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levels in considering the achievements of officials, and the fixed number of officials in each level. After three years(means three times of investigation), each Su-ryeong must return to the capital to directly report his achievements before the King, and after that the court send inspectors to the locality to secretly investigate those reports. Through the changes and development of the achievement investigation from unsystematic arguments (in *Old lessons of Book of Documents*) to a complete reform plan (in *Testaments on Study of Governing*), it can be seen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classical learning and the study of governing in Jeong Yak-yong's thought. His classical learning and study of governing themselves are different from ones in Neo-Confucians: his classical learning pays attention to the social ruling issues, and his study of governing itself is comprehensive social reform projects. That practical classical learning provides ideal models – social standards and ruling ways in Yao-Shun era - for that reformist study of governing. And it also provides important theories on human nature, cultivation, politics etc. for the study of governing so that it has a solid ground for the reformist arguments. Moreover, Jeong Yak-yong's study of governing also relies on the reality(the practical situations) to develop reform plans, thus on one hand, it contains new, practical and rational features, and on the other hand, it makes the classical learning become more realistic.

Key Words | Tasan Jeong Yak-yong, Classical learning, Study of governing, Achievement investigation, *Old lessons of Book of Documents, Testaments on Study of Governing.*

